

FTA BRIEF

미국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 주요 내용과 전망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Vol. 07
SEPTEMBER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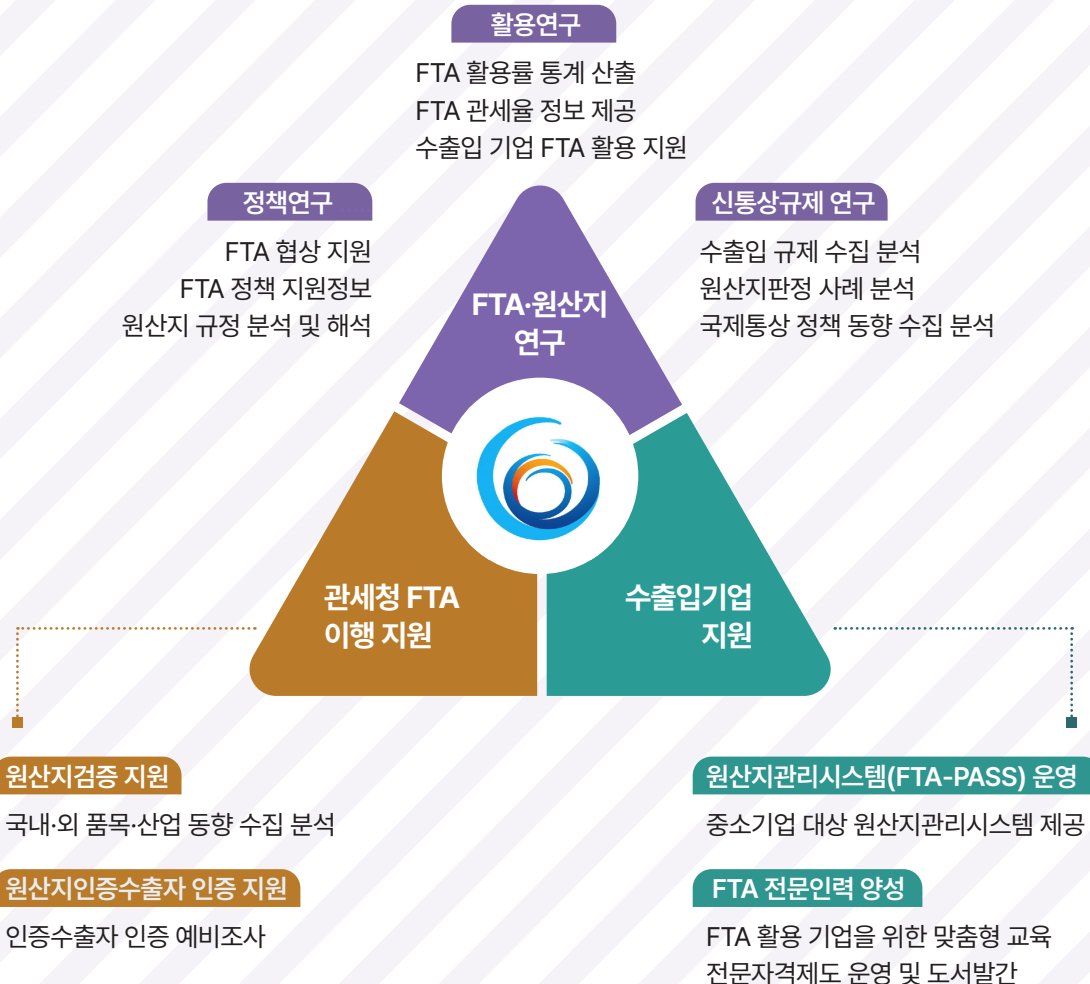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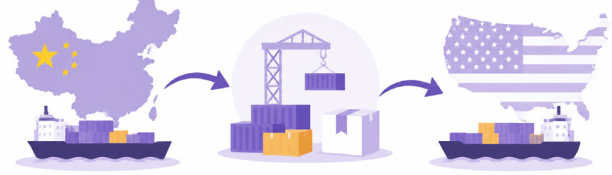
* 사진 출처 :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북 발간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및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요 통상·관세 제도, 수입통관 절차 등 대미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자 한다.
- ☑ 해당 가이드북은 미국의 제232조 관세 과세방식 변경, 무역법 제301조 적용 확대, 미국 CBP의 비특혜 원산지 및 실질적 변형 판단 등 대미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통상·원산지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및 통관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통상·무역 관련 전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 주요 내용과 전망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글_구준희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은 2026.8.13.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8년 무역법 제301조 고관세 부과 이후 중국이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 등 환적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거대한 재조정(The Great Reallocation)’과 이를 뒷받침하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The Shadow Transshipment Network)의 실체를 분석함
- ✓ 동 보고서는 미국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대중 관세 수입 손실을 추정하였으며, 대응 수단으로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구축 현황 및 세관 단속 강화 행정명령(2026.6.3.)을 소개함
- ✓ 또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적 위험 평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경기도가 집적회로의 잠재적 환적 경로로 언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미국의 대중국 우회·회피 판정 및 CBP 실질적 변형 기준 판정 사례를 분석·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해 나갈 예정임

1. 들어가며



2026년 8월 13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은 중국 등 국가의 불법 환적 실태와 규모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무역법 제301조 등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 대미 수출 물품을 제3국으로 보내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한 뒤, 미국에 제3국산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백악관은 보고서를 통하여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을 선별하고, 미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불법 환적 규모와 그에 따른 관세 수입·일자리·GDP·세수 손실액 등 불법 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명령을 통한 단속 강화, AI 기반의 국경감시체계 구축 등을 언급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보고서(이하 ‘백악관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중국의 환적 구조, 경제적 비용 추정, 정책적 대응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대미 수출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백악관 보고서는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을 ‘서류로 위장된 밀수’라고 묘사하였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순 경유(경로변경), 라벨 및 포장 변경, 송장 재발행, 경미한 가공(조립, 마무리 등), 생산능력과 불일치하는 수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등을 언급하였다.

2. 역사적 배경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등 우회 수출 문제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가입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무시, 생산 과잉을 유발하는 보조금 정책, 규제 불투명성, 미국 수출품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우 거부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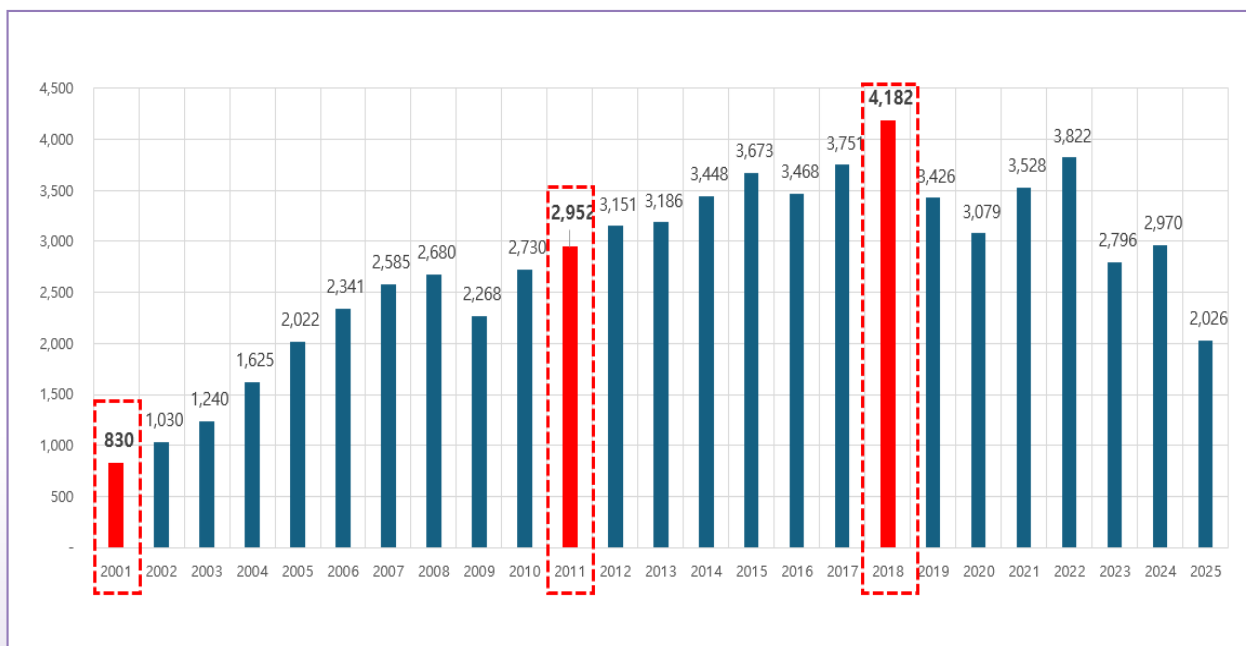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하여 미국 중서부, 남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 공장 폐쇄, 공급망 붕괴, 세수 기반 축소 등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미국 산업 및 방위 기반의 상당 부분이 공동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2018년부터 무역법 제301조 등에 근거한 고관세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 대미 수출 물품의 약 70%(3,700억 달러 상당)에 고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 보고서 내용과 별도로 미국 통계자료(US Census Bureau)를 분석한 결과, 실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17년 뒤인 2018년에 약 5배가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중 상품 무역적자가 2001년 830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11년 2,952억 달러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17년 뒤인 2018년에는 최고치인 4,182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하였다.

● [그림 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세(2001~2025년)

(단위 : 억 달러)



* 출처 : US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China'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 중국의 거대한 재조정(The Great Real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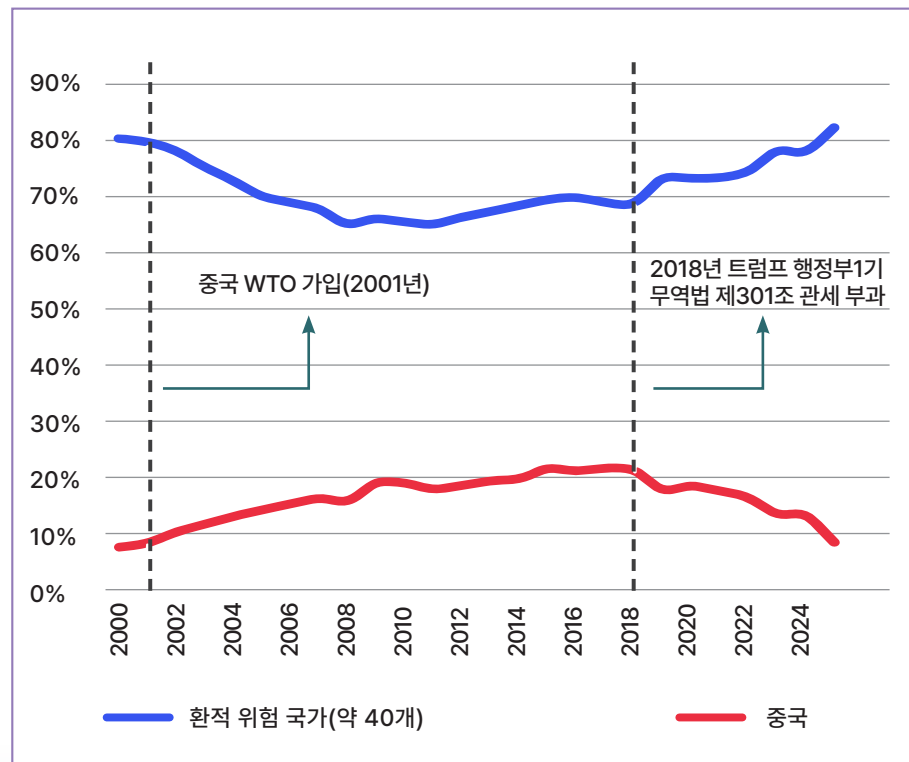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고관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기존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품을 제3국으로 보낸 뒤, 경미한 가공·재라벨링·재포장·재송장 발행·경로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환적 후, 미국에 제3국산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을 두고 ‘거대한 재조정(The Great Reallocation)’이라고 명시하였으며, 그 방식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거대한 재조정’ 흐름을 시각화하였다.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은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OTEA)²⁾,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³⁾ 등이 분석한 자료와 미국 통계자료(US Census merchandise trade data)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그래프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법 제301조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미국 수입에서 중국산 물품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중국의 ‘거대한 재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약 40개의 환적 위험국 원산지 물품의 비중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2]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거대한 재조정
(The Great Reallocation)



* 출처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Rise, Scope, and Costs)'

2)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the Department of Commerce's Office of Trade and Economic Analysis, 이하 'OTEA')

3)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the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이하 'CEA')

동 보고서는 중국의 '거대한 재조정'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환적에 따른 관세 절감액 규모와 환적 인프라 구축에 따른 환적 대상 국가의 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을 미국으로 선적할 경우 제품 구성에 따라 수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발생하나, 이를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 등을 거쳐 제3국산으로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절감된 관세액은 동남아시아, 멕시코, 인도 등 제3국 내 환적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며, 그 과정에서 제3국 기업은 각종 수익(창고보관료, 항만 사용료, 통관 중개 수입, 토지 임대료 등)을 확보하고, 제3국 정부는 일자리, 세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의 효과를 얻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거대한 재조정'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중국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The Shadow Transshipment Network)를 지목하였으며, 이를 통한 불법 환적 등 우회 수출 행위가 미국의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 구조 (The Shadow Transshipment Network)



미국 정부가 지목한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The Shadow Transshipment Network)란 중국산 상품이 새로운 원산지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류 플랫폼, 가공 설비, 재수출 센터, 자유구역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분산 시스템이다.

백악관 보고서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가 약 40개라고 보았고, [표 1]과 같이 중국과의 통합도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1등급 국가이다. 중국 연계 물품⁴⁾ 비중이 높고, 대규모 무역 흐름 속에 환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관련 국가로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 대만이 포함되었다.

둘째, 2등급 국가이다.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통합이 있는 국가로, 환적 물량이 상당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관련 국가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이 포함되었다.

셋째, 3등급 국가이다. 소규모 기회주의 국가로, 저임금·자유무역지대의 이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세관 행정이 취약한 국가들이다. 관련 국가로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오스, 모로코, 미얀마, 오만, 파나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되었다.

4) 중국 연계 물품(China-linked goods): 미국 수입 시 반드시 중국산으로 신고되지 않으나, 중국산 원재료·부품사용, 중국 자본 소유·투자, 중국 공급업체와의 관계, 중국 내 생산공정 수행, 중국 경유 운송 이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중국과 연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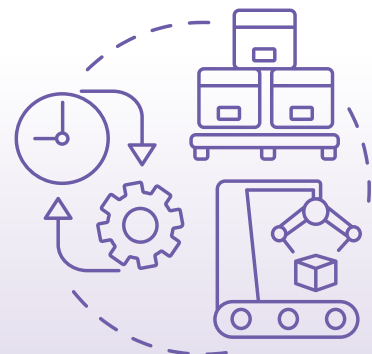
[표 1]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 국가별 등급 분류

등급	명칭	특징	해당 국가
1등급	다각화된 규모의 선도국	• 중국 연계 물품 비중 높음 • 대규모 무역 흐름 속에 환적 위험 내재 • 대미 수출 규모가 타 국가 대비 크고, 다각화된 산업 기반 보유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 대만
2등급	중국과 경제적 통합도가 높은 국가	• 중국 환적 물량 상당량 보유 • 중국 연계 공급망 형성 • 중국으로부터 물품 원재료 조달 • 물류시스템 및 생산 플랫폼 보유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3등급	소규모 기회주의적 국가	• 중국 환적 물량 비중 낮음 • 저렴한 노동력, 자유무역지대, 항만·국경 접근성, 보세창고 등 중국 연계 환적에 유리한 조건과 세관 단속 역량 부족 등 취약점 보유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오스, 모로코, 미얀마, 오만, 파나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 출처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Rise, Scope, and Costs)'
KOTRA 경제통상리포트,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기업 시사점'

동 보고서는 이들 국가를 다시 생산 노드(production-side nodes), 물류 노드(logistics-side nodes)로 구분하였다. 생산 노드는 미국 수출 전 경미한 조립·마감처리·검사·라벨링·포장·부품 조립 등을 담당하며, 물류 노드는 수출경로 설정·창고보관·송장 재발행·재라벨링 등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드 구분에 따른 기능적 구조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미국 정부는 우회 수출 조사·단속 시 이러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구별·분석하고 있는데, 생산 노드와 관련하여 생산능력, 원재료 조달, 제3국 내 부가가치 비중, 노동력 활용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며, 물류 노드와 관련하여 항만, 보세창고, 자유무역지대, 선하증권, 컨테이너 경로, 체류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 GDP 손실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관련 대응 방안으로 글로벌 무역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AI 기반 무역 패턴 분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2]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 기능적 구조

기능적 유형	주요 기능	예시 국가
동남아시아 소형 제조업 허브 (Southeast Asian Microhubs)	- 중국 연계 물품 경미한 조립 - 수출가공구역 형성 - 재라벨링 - 중국 연계 물품 재수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중부·동유럽 가공 벨트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Processing Belt)	- EU 지역 내 마감 공정 등 수행 - 계약생산 - 보세창고 - 지역 내에서 재라벨링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해상관문 (Maritime Gateways)	- 자유무역지대 재수출 - 컨테이너 통합 및 송장 재발행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오만,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일대일로 육상 노드 (Belt and Road Overland Nodes)	철도 및 내륙항 환적, 통합, 육상-해상 연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남미 국가 회랑 (Latin America Corridors)	- 태평양-대서양 우회 - 보세창고 - 지역 조립 시설 마련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프리카 주변 허브 (African Peripheral Hubs)	선별된 중국 연계 물량을 위한 신흥 항만 및 자유무역지대	케냐, 모로코
선진 물류 플랫폼 (Developed Logistics Platforms)	선진화된 세관, 항만, 무역상사, 보세창고, 글로벌 재수출 시스템 보유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튀르키예

* 출처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Rise, Scope, and Costs)'
KOTRA 경제통상리포트,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기업 시사점'

5. 중국의 환적 수출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



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 추정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기관인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OTEA),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민간기업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AI 공급망 관리 기업인 엑시거(Exiger) 및 알타나(Altana)에서 분석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보고서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추정치는 기관에 따라 연간 400억~3,03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 및 기업은 추정치 산출을 위하여 상품의 무역흐름 분석, 선적 단위 추적, 계량경제모형 활용 등 개별적인 방법론과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표 3]과 같은 금액이 산출되었다.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OTEA)은 HS 코드 6단위 기준 459개 품목을 기준으로 중국산 물품 수입 감소 규모(1,090억 달러)와 그 외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 증가 규모(1,560억 달러) 중 보수적인 값인 중국산 물품 수입 감소 규모를 기준 금액으로 제시하였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무역법 제301조 적용 대상 물품 중 중국산 비중이 감소하고 제3국 원산지 비중이 증가한 품목을 선별하여 342억~896억 달러 구간을 산출하였다. 그 후, 해당 구간의 중간값을 보수적으로 반올림한 600억 달러를 대표값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금융기업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제품 단위 무역 흐름에 대한 계량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400억 달러를 제시하였다.

AI 공급망 관리 기업인 엑시거(Exiger)는 27개국·우선순위 HS 6단위 품목군의 선적 흐름 분석을 이용하여 511억 달러를 추정한 뒤, 이 값과 상한선인 1천억 달러의 중간값인 750억 달러를 제시하였고, 알타나(Altana)는 시설단위 공급망 관계를 추적하여 원산지-제3국 등 중간지역-최종 목적지 경로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3,030억 달러를 제시하였다.

[표 3] 연간 불법 환적 규모 추정치

단위 : USD

기관명		추정치	산정 근거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OTEA)		1,090억 달러	2025년 기준 HS 코드 6단위 기준 459개 품목을 선정하여 중국산 물품 수입 감소 규모(1,090억 달러)와 제3국 물품 수입 증가 규모(1,560억 달러)를 비교 분석 후, 보수적인 값(1,090억 달러)을 추정치로 제시함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600억 달러	2025년 기준 무역법 제301조 적용 대상인 중국산 물품 중 중국산 비중이 감소하고 제3국 원산지 비중이 증가한 물품을 선별하여 342억~896억 달러를 산출하였으며, 그 중간값인 600억 달러를 추정치로 제시함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400억 달러	2023년 기준 제품 단위 무역 흐름에 대한 하향식 계량 경제 모형 활용
AI 공급망 관리 기업	엑시거(Exiger)	750억 달러	2025년 2월~2026년 2월 기준 27개국,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HS코드 6단위 품목군을 정하고, 이들의 선적 흐름을 추적하여 환적 수입된 금액 511억 달러 산출 직접 산출한 511억 달러에 관세 절감 및 회피의 실제 연간 규모 1,000억 달러를 상한선으로 두고 그 중간값인 750억 달러를 추정치로 제시함
	알타나(Altana)	3,030억 달러	제품 단위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시설단위 공급망 관계를 추적하여 원산지-중개시설-최종 목적지 경로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연간 대미 불법 환적 노출 규모를 추정함

※ 출처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Rise, Scope, and Costs)’

나.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 추정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기본 관세율이 평균 50%임을 전제하고, 우회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 격차를 25%, 35%, 45% 세 가지로 가정하여 관세 수입 손실액을 산출하였으며, 반덤핑·상계관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관세 수입 손실액은 100억~1,36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4] 불법 환적으로 인한 연간 관세 수입 손실 규모 추정치

단위 : USD

기관명		불법 환적 규모 추정치	관세율 격차 25% 적용 시 손실액	관세율 격차 35% 적용 시 손실액	관세율 격차 45% 적용 시 손실액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OTEA)		1,090억 달러	270억 달러	380억 달러	490억 달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600억 달러	150억 달러	210억 달러	270억 달러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400억 달러	100억 달러	140억 달러	180억 달러
AI 공급망 관리 기업	엑시거(Exiger)	750억 달러	190억 달러	260억 달러	340억 달러
	알타나(Altana)	3,030억 달러	760억 달러	1,060억 달러	1,360억 달러

● 출처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Rise, Scope, and Costs)'

주 1 : 이 표 각 행의 추정치는 데이터, 방법론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산 및 비교가 불가능함

다. 일자리·GDP·연방단위의 세수 손실

앞서 추정한 불법 환적 규모 추정치의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기준으로 연간 GDP 손실, 연방 세수 손실, 일자리 대체 규모를 산정한 결과, [표 5]와 같은 금액이 산출되었다.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가 10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일자리 6,000개가 감소하고, GDP가 15억~20억 달러 감소하며, GDP 손실의 17%에 해당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함을 전제로 계산하였다.

최소값인 400억 달러의 경우, 연간 GDP 600~800억 달러, 연방 세수 100~140억 달러, 일자리 24만 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간값인 750억 달러의 경우, 연간 GDP 1,130~1,500억 달러, 연방 세수 190~260억 달러, 일자리는 45만 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대값인 3,030억 달러의 경우, 연간 GDP 4,550~6,060억 달러, 연방 세수 770~1,030억 달러, 일자리는 182만 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5] 불법 환적으로 인한 일자리, GDP, 연방단위 세수 손실 추정치

단위 : USD

구분	불법 환적 규모 추정치	연간 GDP 손실	연방 세수 손실	일자리 감소 규모
최소 환적 규모 (Low/Narrow Case)	400억 달러	600~800억 달러	100~140억 달러	24만 개
중간 수준 환적 규모 (Central Case)	750억 달러	1,130~1,500억 달러	190~260억 달러	45만 개
최대 환적 규모 (Broad Exposure Case)	3,030억 달러	4,550~6,060억 달러	770~1,030억 달러	182만 개

● 출처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Rise, Scope, and Costs)'

라. 주요 불법 환적 품목별 환적 거점과 미국 내 영향 지역

백악관 보고서는 물량이 많고 환적 위험이 있는 물품, 환적 위험이 있는 중국 연계 물품을 취급하는 제3국, 그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미국 제조업 지역 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대응 관계에 있는 제3국을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y)'라고 표현하였다.

환적 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품목은 전동기·발전기·변압기·정류기(HS 8501~8504), 집적회로(HS 8542.39), 회로보호 및 개폐장치(HS 8536), 펌프 및 컴프레서(HS 8413~8414), 플라스틱 제품(HS 3926.90), 플라스틱 박스·케이스·크레이트·포장용품 등(HS 3923.10), 온도조절기(HS 9032.10), 커넥터 부착 절연전선·케이블 조립품(HS 8544.42), 전동기·발전기 부품(HS 8503.00) 등이다.

환적 물품을 취급하는 제3국으로 멕시코, 대한민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를 언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가 집적회로 관련 환적의 잠재적 경로로 언급되었다.

제3국 환적에 영향을 받는 미국 내 지역으로 디트로이트, 시카고, 휴스턴, 포틀랜드, 댈러스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들 지역이 중국의 불법 환적 등 무역행위로 인한 일자리 감소, 수출 감소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표 6] 주요 불법 환적 물품과 환적국 및 미국 내 영향 지역 관계

불법 환적 대상 물품 [HS 코드]	환적국 (지역명)	미국 내 영향 지역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Electric motors, generators, transformers, and static converters) [8501~8504]	멕시코 (Guanajuato, Querétaro)	• 디트로이트(Detroit) • 그랜드래피즈(Grand Rapids) •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s) [8542.39]	대한민국 (Gyeonggi)	• 피닉스(Phoenix) • 오스틴(Austin) • 포틀랜드(Portland) • 산 호세(San Jose)
회로보호 및 개폐장치 (Circuit protection and switching apparatus) [8536]	베트남 (Ho Chi Minh City)	• 시카고(Chicago) • 밀워키(Milwaukee) • 록포드(Rockford)
펌프 및 컴프레서 (Pumps and compressors) [8413~8414]	인도 (Pune, Gujarat, Chennai)	• 신시내티(Cincinnati) • 데이턴(Dayton) • 콜럼버스(Columbus)
플라스틱 제품 (Plastic articles) [3926.90]	말레이시아 (Penang, Kulim)	• 애크런(Akron) • 캔턴(Canton) •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부 (Upstate South Carolina)
플라스틱 박스·케이스·크레이트·포장용품 (Plastic boxes, cases, crates, and packing articles) [3923.10]	인도네시아 (Bekasi, Batam)	• 휴스턴(Houston) • 레이크찰스(Lake Charles) • 보몬트(Beaumont) • 털사(Tulsa)

온도조절기 (Thermostats) [9032.10]	태국 (Ayutthaya, Samut Prakan)	•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 세인트폴(St. Paul)
커넥터 부착 절연전선·케이블 조립품 (Insulated conductors and cable assemblies with connectors) [8544.42]	도미니카공화국 (Caucedo, Haina)	• 포틀랜드(Portland) • 시애틀(Seattle) • 스포캔(Spokane)
전동기 및 발전기 부품 (Electric motor and generator parts) [8503.00]	코스타리카 (Limón, Moin)	• 댈러스(Dallas) • 포트워스(Fort Worth) • 오클라호마시티(Oklahoma City)

※ 출처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Rise, Scope, and Costs)'
KOTRA 경제통상리포트,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기업 시사점'

6. 정책적 대응 방안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와 같이 환적 및 우회 수출 방식이 정교해짐에 따라 개별 사건 단위가 아닌 네트워크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구축과 행정명령 도입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가. AI 기반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전신인 미국 관세청(US Customs Service)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표적선정센터(National Targeting Center)를 설립하여 화물·여행자 심사 및 국가안보 위협 식별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후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기존 표적선정·위험분석 체계에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과 머신러닝(Machine-learning)을 접목해 왔다⁵⁾.

다만 백악관 보고서에서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적 관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선적 단위가 아닌 네트워크 단위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탐지·연계분석·생산능력검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5)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및 기타 유형의 콘텐츠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하며, 머신러닝(Machine-learning)은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한 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다. 머신러닝은 거대언어모델(LLM)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IBM 홈페이지, <https://www.ibm.com/kr-ko/think/topics/machine-learning>).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는 전 세계 무역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원산지, 무역 경로, 구성요소 함량 등을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패턴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상 징후를 식별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불법 환적을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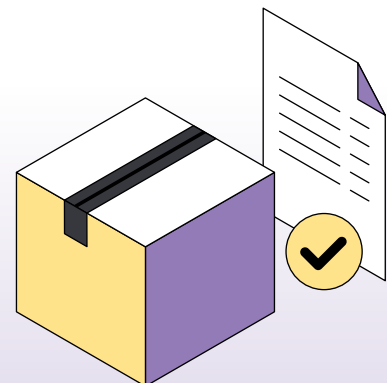
그 외 항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비전 스캐너 및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하여 컨테이너 표시·포장 패턴·X선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신고 화물과 실제 화물 간의 불일치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같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세관 단속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 2026.6.3.)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구축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6월 3일 '세관 단속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을 발동하였다.

행정명령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수입업자 요건 강화, 보증금 및 국내자산 요건 상향, 소유권 및 사업 관계 추가 공개, 세관 투명성 제고 등을 지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용하여 페이퍼컴퍼니 수입업자, 미국의 단속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수입업자, 불투명한 소유구조, 상습 위반자 등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가 악용해 온 취약점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 마무리하며



본 고에서는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이 발간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의 '거대한 재조정(The Great Reallocation)' 배경,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The Shadow Transshipment Network)'의 등급별·기능별 구조, 불법 환적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 규모, 미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미국 정부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산출한 연간 400억~3,030억 달러의 환적 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관세 수입 손실뿐만 아니라 일자리·GDP·연방 세수 손실까지 정량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The Shadow Transshipment Network) 참여국에 포함되었다는 점, 경기도가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환적 경로로 언급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 참여국으로 언급된 이유는 개별 기업의 환적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무역 구조에 근거한 보고서의 분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1등급 국가를 '중국 연계 물품 비중이 높고, 대규모 무역 흐름 속에 환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로 정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경기도가 언급된 것은 해당 지역에 반도체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 물품의 대미 수출 거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미국 내 영향 지역으로 제시된 피닉스·오스틴 등 역시 반도체 산업 관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응 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우리나라가 환적 관련 사안에서 미국의 감시·분석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구축 중인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원산지·생산공정 정보가 정밀하게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기업 차원에서 원산지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실질적 변형 요건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미국의 우회·회피 판정 및 CBP 실질적 변형 기준 판정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관세청 FTA 포털에 탑재·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